탄생 100주년 고향에 닿다

갤러리 누보, 양인옥 특별전
풍경·인물·기록화 등 20여 점
개인 소장 미공개 작품 다수
'빛의 질감' 예술 세계 조명

일본 오사카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한 제주 출신 양인옥(1926~1999). 호남대 총장을 지내는 등 목포교육대·호남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했고 호남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아 풍경·인물·누드·기록화 등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구상회화 세계를 구축한 인물이다. 그가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에 제주로 돌아 왔다. 갤러리 누보가 마련한 '빛의 질감(The Texture of Light)-양인옥 탄생 100주년 특별전'을 통해서다.

이달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어지는 특별전에는 195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 작품까지 20여 점이 나온다. 갤러리 누보 송정희 대표가 양인옥 탄생 100주년을 기억하며 개인 소장자들에게서 꺼낸 그림들로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는 작품들이 다수라고 했다. '한라산의 봄' 등 고향을 떠난 뒤에도 그의 화폭 안에 살아 있던 제주 소재 작품도 있다.

이 전시는 양인옥의 예술적 궤적을 보다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양인옥 회화의 핵심을 '빛의 질감'이란 말로 압축한 송 대표는 "풍경과 인체라는 서로 다른 장르를 관통하는 탄탄한 데생, 절제된 색채, 빛에 대한 감각,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전시"라고 소개했다.

오프닝은 19일 오후 4시. 갤러리는 제주돌문화공원 제2코스 입구에 있다. 월요일은 문을 닫는다.

양인옥의 '한라산의 봄'(1988). 갤러리 누보 제공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5회 제주비엔날레 현장 초감제 올리고 작가와 대화

제5회 제주비엔날레 현장에서 제주 사람들을 위로했던 굿의 오늘을 만나는 자리가 펼쳐진다. 이달 17일 오후 3시 제주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에서 열리는 '다시 살으라' 초감제와 18일 오후 1시 예술공간 이아에서 진행하는 작가와의 대화다.

'다시 살으라' 초감제 장소인 시민갤러리에서는 이진경의 신작 '나는 그 초록인가'를 전시하고 있다. 격변의 역사 속에 끝내 꺾이지 않은 초록에 주목해 설치 작업을 벌였다. 초감제에는 사단법인 국가무형유산 제주큰굿보존회 회장인 서순실 심방을 비롯해 오용부·이경희·송영미 심방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튿날 작가와의 대화에는 '큰할망의 배꼽: 신화' 섹션에 참여한 곽윤주, 김영화, 손유진이 함께한다. 세 작가 모두 굿과 맞닿은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비엔날레 작가와의 대화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비엔날레 누리집 또는 공식 SNS 참고. 진선희기자

오래된 이야기 오케스트라 선율에 싣고

제주교향악단 정기 공연
'천 하룻밤의 제주 설화'
브랜든 최 색소폰 협연

오케스트라 선율에 세계의 오래된 이야기들이 어우러진다. 박승유가 지휘하는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의 제184회 정기 연주회에서다. 이달 17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이날 연주회는 '제주 헤리티지 시리즈' 네 번째 무대다. 이번에는 '천 하룻밤의 제주 설화'란 부제를 달았다. 천 하룻밤 동안 이어지는 이야기 속 항해와 바다, 운명과 지혜를 음악으로 빚는다.

색소폰 협연 브랜든 최. 제주시 제공

공연 프로그램은 닐센의 '알라딘 모음곡 중 발췌 작품 34', 드뷔시의 '알토 색소폰과 관현악을 위한 랩소디, L.98',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셰에라자드 작품 35' 순으로 구성했다. 화려한 리듬과 풍부한 관현악적 색채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그려내는 첫 곡을 시작으로 드뷔시 특유의 섬세한 관현악 색채와 색소폰의 유려한 음색이 조화를 이루는 랩소디를 지나 변화무쌍한 선율과 극적인 전개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마지막 무대에 닿을 예정이다.

색소폰 협연은 클래식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 익숙한 고전을 색소폰의 언어로 새롭게 풀어내는 동시에 무대와 대중 사이의 거리를 좁혀 온 음악가다.

입장권 예매는 제주예술단 누리집. 공연 당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다. 진선희기자

금관앙상블 '브리즈브라스' 정기 연주회 '바람의 독백' 금관6중주곡 창작 초연 등

제주에서 활동하는 젊은 금관 연주자들로 꾸린 전문 앙상블인 브리즈브라스가 창작 초연곡 등으로 다섯 번째 정기 연주회를 펼친다. 이달 24일 오후 3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번 연주회는 '바람의 독백'이란 이름을 달았다. 연주자의 호흡에서 시작된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기억과 감각에 남는 과정을 표현한 말이다.

출연진은 트럼펫 김경묵·박지호, 호른 이동혁, 트롬본 김용석, 유포니움 좌종은. 튜바 부정환은 객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김용석 단원이 작곡한 'Resilience(회복)', 이주성 작곡가에게 위촉한 금관6중주를 위한 '바람의 독백'을 초연한다. 플루트 김형관과 클라리넷 윤태형이 협연하는 이타루 사카이의 '7월 7일 밤 타나바타', 낭만주의 금관 앙상블의 주요 레퍼토리 중 하나인 오스카 뵈메의 '금관6중주'도 준비했다. 관람료 무료.

브리즈브라스는 2021년 창단했다. 정기 공연 등을 통해 금관앙상블 레퍼토리를 꾸준히 소개해 왔다. 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 그림ᄒᆞᆫ판 <517>

구성:(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멘: "야으덜아, 이제부떠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 시인이 씬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옌 ᄒᆞᆫ 디서 '달의 귀가'에 대ᄒᆞᆫ 시 이왁을 ᄒᆞ여보켜."

달의 귀가

ᄃᆞᆯ이 피를 흘린다
ᄃᆞᆯ피는 실렵다
벳살에 볽현 소들앗단 풀섭
ᄃᆞᆯ피를 받은 후제
허공 짚언 ᄎᆞᆫᄎᆞᆫ히 일어산다

ᄃᆞᆯ은 피를 흘치멍
서펜으로 서펜으로 계속 ᄃᆞᆯ린다
아, ᄃᆞᆯ은 집이 서펜에 이신 것

ᄃᆞᆯ피 ᄉᆞᆷ진 질덜이 꾸물락꾸물락 깬다
질덜은 서펜으로 ᄄᆞ라가지 안 ᄒᆞ고
가로각산 걸어간다
아, 질덜은 집이 다 ᄐᆞ나구나

ᄃᆞᆯ추룩 안 쉬멍 사는 나가
어디로 가코 ᄉᆞᆯ피는 ᄉᆞ이
ᄃᆞ이 진다 캄캄헤졋다
집덜도 다 집이 간 모냥
아, 나도 그만 집이 가사키여

<자료 : 양전형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층>
<계속>

제주어 풀이

*ᄃᆞᆯ: 달 *실렵다: 차갑다
*벳살에 볽현: 햇살에 밝혀
*소들앗단 풀섭: 시들었던 풀잎들
*짚언 ᄎᆞᆫᄎᆞᆫ히 일어산다: 짚고 서서히 일어선다
*ᄃᆞᆯ린다: 달린다 *이신 것: 있는 것
*ᄃᆞᆯ피 ᄉᆞᆷ진 질덜이: 달피 삼킨 길들이
*ᄄᆞ라가지 안 ᄒᆞ고: 따라가지 않고
*가로각산: 제각각 걸어간다 *ᄐᆞ나구나: 다르구나
*ᄃᆞᆯ이 진다 캄캄헤졋다: 달이 진다
*가사키여: 가야겠다